

# 내년 노인일자리 4만149명 푼다

### 전북도, 올해 3만123명보다 1만26명 늘어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의 수요 우선적 반영

전북도는 6일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 3만123명보다 1만26명 늘어난 4만149명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 내년도 일자리 대폭 확대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발품을 판 결과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 분야와 어르신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시장형, 민간 기업에 인력을 파견하는 인력파견형 등으로 구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참여경력 정도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의 수

요를 우선 반영하고 시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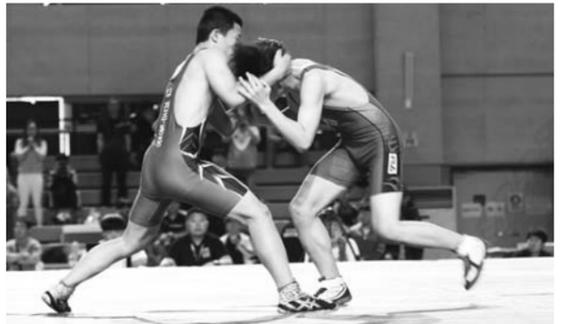
또한, 내년도에는 신규로 도내 어린이집에 노인일자리(2,800여개)를 연계하여 교육 지원 등을 할 계획이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천개를 확보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및 교육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양한 노인일자리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를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등과 공

조하여 실버 카페, 식당 운영 등 노인들 스스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 구형보 복지여성보전국장은 "고령사회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가장 우선적이고 노인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다"며, "도는 어르신들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더 많은 노인 일자리를 발굴 및 확보하여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체육회는 내년 5월 도내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이달부터 1차 선발대회를 각 종목별로 진행한다. 사진은 올해 열린 소년체전 레슬링 경기.

## “체전 승리의 기쁨, 동생들이 이어간다”

### 전북체육회, 내년 5월 소년체전 앞두고 1차 선발대회 진행 야구·체조 등 이달부터... 축구 등은 내년 체전 선발과 병행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내년 5월 도내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이달부터 1차 선발대회를 각 종목별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선발대회에 임하는 선수들은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3위 성적을 거둔 선배들의 승전보를 이어간다는 각오이다.

각 종목별로 살펴보면 야구는 이달부터 9일까지 김제지평산야구장에서 대회가 열리고 체조와 배구, 정구는 10일에 진행된다.

또 역도와 사격, 펜싱은 16일부터 이틀간 열리고 태권도와 복싱은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밖에 수영과 테니스, 자전거, 씨름, 검도, 양궁, 볼러, 바둑 등 대부분 종목에서도 선발대회가 열린다.

특히 축구와 농구, 골프 등 일부 종목의 경우 소년체전 선발전과 함께 내년 100회 전국체전을 위한 선발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1차 선발대회에서 뽑힌 선수들은 2차 선발대회 등을 거쳐 최종 전북 선수단으로 선정, 내년 소년체전에서 전북 체육 위상을 드높이게 된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줬으면 좋겠다"며 "전북 체육 꿈나무들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 민생현장 솔루션팀 고창 전통시장서 고충 해결

전북도 민생현장 솔루션팀이 6일 고창전통시장 내 공동판매장에서 처음으로 운영됐다.

“민생현장 솔루션팀”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찾아가 시장 상인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과 고충해결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세무, 경영, 마케팅 등 각 분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고창전통시장을 찾은 솔루션팀은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상인들의 눈높이에서 고충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특히 더 많은 상인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실내운영반과 함께 솔루션팀이 상가를 직접 방문하는 순회 운영반을 운영하여 호응을 얻었다.

솔루션에 참여한 상인은 “관심은 있었지만 접하기 힘들었던 분야와 다양한 고민을 한자리에서 상담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어서 많은 상인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에 소재한 영장류자원지원센터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 병원성 미생물 미감염 영장류 자원 대량생산 가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읍시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준공식

정읍시(시장 유진섭)에 국가 영장류 자원의 공급체계 해결과 안정적인 영장류 자원 지원을 위한 고품질 SPF 영장류 자원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영장류자원지원센터'가 건립됐다.

\*\*SPF(Specific Pathogen Free) : 특정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은 6일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에 소재한 영장류자원지원센터(센터장 김지수)에서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 최정호 정부부지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 이사장, 학기술통신부 한성일 연구기관 지원팀장 및 연구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영장류자원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4년간 총 204억원(국비 167억, 연구소 18억, 시 19억)이 투입되어 건립됐다. 부지면적 7만2,744㎡에 연면적 9,904㎡로 사육동 10동, 본관동 1동, 검역동 1동 외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영장류는 국가재난형전염병(메르스 등)의 신약 개발 및 뇌 연구 등 전임상 연구의 필수 자원으로 국내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영장류 지원센터는 이러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별 모체 영장류 자원을 도입하고, 자체 대량 번식 체계를 구축하여 영장류 자원의 국산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현재 1,090마리의 영장류가 확보되어 운영 중이며, 향후 3,000마리 사육 규모를 목표로 관련 연구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다.

영장류자원지원센터는 ▲연차별 모체 영장류 도입을 통한 검역, 사육, 번식 및 운영 ▲ 고품질 SPF 영장류 사육 및 운영을 위한 헬스 모니터링 체계 확립 ▲ 대량사육 및 번식을 위한 체계적 절차 확립 ▲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영장류 연구지원 인프라 활성화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연구소 관계자는 본 센터 건립으로 우리 지역에 바이오 인프라가 구축되어 국내 바이오생명기술 발전과 활성화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미국 중간선거 시작... 오늘 윤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 중간선거가 6일 시작됐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미 동부시간으로 6일 오전 5시(한국시간 6일 오후 7시)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전체 결과 윤곽은 동부시간으로 7일 오전까지(한국시간 7일 오후) 나올 전망이다.

/뉴시스

## 탄소 신사업 발굴 공동 수행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탄소융합기술원·섬유기계융합연구원과 협약 기술개발지원 사업 수주 위한 공동연구·기관 간 기술교류회 추진 등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가 6일 센터 회의실에서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방운혁),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원장 이재원)과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삼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탄소산업 발전과 광역권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세 기관은 앞으로 신사업 발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기술개발지원 사업 수주를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기획 추진 ▲기관 및 연구원 간 기술교류회 추진 ▲공동협력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삼자협약을 통해 탄소 소재분야 개발 확대와 기관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은 경북 경산에 소재한 섬유기계 전문기관으로 신소재와 ICT 등을 접목한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지원부 산하 연구원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